

연인두 폐쇄 부전 환자의 보상조음 특성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이 은 경 · 손 영 익

연인두 폐쇄 부전으로 보상조음이 있을 때, 말 명료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실제의 연인두 기능이 과소평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별 및 언어치료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인두 폐쇄 부전 환자들에서 보상조음의 출현을 알아 보고 어떤 음소들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령과 과비성의 정도에 따른 차이도 살펴보았다.

1998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연인두 폐쇄 부전으로 진단 받고 언어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언어치료 경험은 있지만 일반화되지 않고 중단된 환자 105명의 조음 및 공명 평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령은 평균 11.3세(2.1세부터 63세)였고 7세 이하의 아동집단이 65명, 성인집단이 40명이었다. 조음은 구강압력자음인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에서의 보상조음의 유무 및 종류를 분석하였다. 과비성의 정도는 경도, 중도, 심도로 평가하였다.

연인두 폐쇄 부전 환자의 44.5%에서 보상조음이 출현하였는데 아동집단이 49.23%, 성인 집단이 40%로 연령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보상 조음은 인두파찰음을 보인 4명을 제외하고는 성문파열음이었으며 대치율은 연구개파열음(41.27%), 경구개파찰음(31.75%), 치조마찰음(29.05%), 치조파열음(19.37%), 양순파열음(16.5%) 순으로 나타났는데 연음이나 기식음에 비해 긴장음에서 더 높았다. 연령 집단간 비교에서는 아동집단에서 양순파열음과 치조파열음이 더 높은 대치율을 보였다. 과비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보상조음의 출현율, 연구개파열음 /ㄱ/, /ㅋ/, /ㄲ/, 경구개파찰음 /ㅈ/, 치조마찰음 /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인두 폐쇄 부전이 있을 때, 많은 환자들에서 성문파열음의 보상조음이 출현하는데 연구개 파열음과 긴장음이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우며, 언어치료로써 소거가 되지 않았을 때 성인에서도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